

〈평가받는 인생〉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3/18(주일) 설교 내용

전도서 7:1-4

1.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외형적인 겉모습에 치중한 평가였는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렸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 평가가 잘못된 평가였음이 드러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을 보며,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사람의 전혀 다른 모습들을 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며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외형적인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그 평가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평가를 내렸을텐데,
시간이 흐르고 난 뒤, 내가 내렸던 그 평가가 잘못되었음이 드러났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초상집에 가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나의 죽음을 애도하는 초상집에 손님들이 찾아온다면,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평가는 어떤 것일까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초상집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함께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이지 않고, 진솔하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3. 2번 질문에서의 사람들에게서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될 평가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죽고 난 이후..
사람들이 나에게 내리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나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듣기 원하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한 평가일 것입니다.
함께 진솔한 나눔이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